

익산 문화유산 야행 성료

3일간 3만여명 방문객 감탄 이끌어 내... 익산 야행의 명성 확인

4만여 평의 너른 백제왕궁에서 펼쳐진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방문객의 감탄을 끌어내며, 익산 야행의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백제왕궁인 왕궁리유적에서 치러진 '2024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둘째 날 오전 8시에 대성황을 이뤘다.

'백제왕궁야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문화유산 야행은 지난해 전국 우수 야행에 선정된 것과 다수의 유산 발굴 성과를 축하하는 연회의 주제로 진행됐다.

유산 분야 성과를 흥미롭게 풀어낸 개막식을 시작으로, 짜임새 있는 질 높은 체험 행사와 백제왕궁을 가득 채운 야간 조경, 공연들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익산 야행의 강점인 체험 행사를 한층 강화해 선보인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였다.

사리장엄 만들기, 백제왕궁 해어살롱과 스튜디오, 재활용품 활용한 리사이클링 장신구 체험 등 기록·발굴로 증명된 백제 유산의 다양한 유물과 문양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풍부했다.

특히, 첫날과 마지막 날에 진행된 탐돌이와 해설을 연계한 소원등 날리기 방문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왕궁의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부 부스를 최소화하고, 건물지에 관람 시설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구성한 것도 눈에 띄어 볼만했다. 스타 역사화자인 최태



4만여 평의 너른 백제왕궁에서 펼쳐진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방문객의 감탄을 끌어내며, 익산 야행의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성 선생의 해설과 왕궁 곳곳에 퍼포먼스를 가미한 역사 해설 등으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고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백제왕궁 유적지 내 후원 영역을 수려한 야간조경과 함께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공간 구성구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하는 교통 문제의 세심한 개선도 눈에 띄었다. '차 없이 오는 야행'으로 진행해 주차 스트레스 극복과 탄소배출 감소의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행사장 내 별도의 방문객 주차장을 없애고 인근 마루사지 주차장 팔봉공설운동장, 서동공원 및 익산고등학교가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순환버스 운행 시 야기되는 중간노선 단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주요거점 정류장을 지정하고 백제왕궁까지 직통형 셔틀버스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세계유산인 백제왕궁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선물이 됐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방문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7회 연속 개최한 익산 문화유산 야행은 지난해와 2019년 문화재청 전국 우수야행으로 선정됐다. 또한 상위 5개 지자체에 부여되는 문화재청 평가 등급 선정과 매해 수만 명이 찾는 명성과 위상을 자랑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전북대 익산캠퍼스 “온 힘 다해 지켜낼 것”

전북대, 익산캠퍼스 축소 계획에 강한 유감 표명... 이전 계획 전면 철회 촉구

익산시가 전북대학교의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익산캠퍼스 입학 정원을 168명에서 50명으로 7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익산캠퍼스에 있는 환경생명자원대학이 폐지되면서 해당 정원이 전주로 옮겨가고, 익산에는 수의학과(학년 당 50명)만 남게 된다.

시는 전북대가 지역과 아무런 소통 없이 2007년 체결된 '전북대-익산대

통합'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전북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처럼 일방적인 결정은 익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양모전 전북대 총장을 직접 만나 익산시민에 대한 사과와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북대 익산캠퍼

퍼스와 전신인 익산대학은 100년 전통 이리농림학교 명맥을 잇는 중요 자산"이라며 "지역 뿌리이자 정체성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2007년 익산대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익산캠퍼스를 만들었다. 익산대의 농학계열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전북대 수의대를 익산으로 이전해 두 개의 단과대학을 익산캠퍼스에 두겠다고 합의문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개관

익산시, 송학동 도시재생 사업... 약 80억원 투입 4층 규모 조성

익산시가 송학동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시는 22일 송학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이춘석 국회의원 당선인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학동은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문화·상업시설이 부족해 생활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돼 왔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2019년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약 80억 원을 들여 4층 규모로 '푸른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했다. 센터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한다.

1층은 마을카페와 무인코인 빨래방

으로 조성돼 있고 2층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문화 교육을 위한 북카페 공간으로 꾸며졌다. 북카페는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청년 및 다양한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3~4층에는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키움실, 체력 측정실, 운동장비 등이 구비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및 민성·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진행된다.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4층에는 공유주방이 조성돼 지역 복지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군산시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다.

이 기간에는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위험요소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안전 분야 전반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최근 재해가 발생했거나 국민 관심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10개 분야 134개소다. 군산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안전점검 후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진단이나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군산시는 집중안전점검의 시민 참여와 관심 증대를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해 개인 소유 시설·구조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참여기업 추가모집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입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5월 13일이며, 군산 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 개별입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15개 기업 (30여명 정도)이다.

이번 모집은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개별입지 기업까지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기타 조건은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원 한도) 이내로 지원하며, 기숙사 이용자는 입사 5년 미만 근무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재산세 비과세 감면분 일제조사

군산시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대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는 비과세·감면분 부동산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6월 말까지이며 편성된 조사반(재산세계장 5명)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유관기관 협조,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신규 감면, 감면 기간 종료, 감면 목적의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비과세 대상 토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비과세 적정 여부 점검이다.

이외에 종교단체·복지시설·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해 감면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은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